



가족계획소식

요원을 위한

<월간·제10호>

발행인 홍 중 관
편집인 김 용 완
인쇄인 김 태 등

발행소·가족계획연구원
서울서대문구 녹번동115
(우편번호120-02)
☎8003~7

1974. 5. 31 등록
라-1793호

【1】 1975년 3월15일

가족계획사업의 12년간 주역은?

이 연구결과는 가족계획연구원의 협조로 한기춘(韓基春) 연세대학교수에 의해 최근 발표됐다. 한교수는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에 투자한 총투입비용과 수익면에서의 출생방지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구명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1962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12년간 정부및 의원자금은 총 1백23억원이 투입되었다. 12년간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수익을 알아보자.

출생아 2백 35만 방지된 셈

한교수는 가족계획 사업에 투입한 비용으로 총 2백35만명의 출생아를 방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백35만명 중에는 자궁내장치 1백33만명, 불임수술 30만명, 먹는 피임약 27만명, 콘돔 44만명이다. 이로써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 인구자연증가를 약 2·9%이던것이 1973년에는 1962년보다 1·2%나 떨어진 약 1·7%를 나타냈다. 결국 급속한 인구증가의 압력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더우기 효율성에 있어 특기할 사실은 지난 12년동안 1차적 효과 총 7천1백85억원(2차효과 제외)이 절약됐다는 것이다. 이는 출생방지된 2백35만명이 만일 태어났을 경우, 이들을 먹이고(食), 입히고(衣), 재워주어야할(住) 비용과 기타 교육비용(1인당 12세까지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평균비용: 1백만 5백12원)의 지출총액이다.

1·2차효과 총8천7백36억원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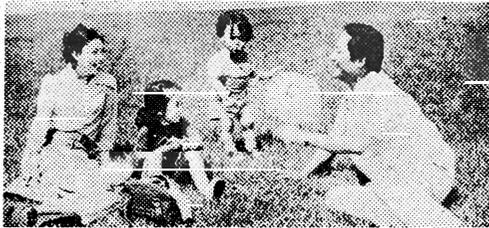
이 12년간의 소비 절약효과 7천1백85억원을 제1차적인 효과로 보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매1인당 소비증대효과(영양섭취)로 얻어지는 노동생산성효과 1천5백51억원을 제2차효과로 계산하여 총 8천7백36억원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구명되고 있다.

1인당 소득증대액 2천3백20원

또한 이와 같은 매인당 소득의 증

대는 저축의 증대를 가져오고(1천9백원) 이에 따른 생산소득의 증대효과(4백20원)를 합쳐 1인당 소득증대액은 2천3백20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지난 12년간의 가족계획사



◇가족계획사업은 가정과 국가와 인류를 위하여...

업에 투입된 총예산 1백23억원과 총수익 8천7백36억원을 비교하여 보면 약71배의 효율성이 있어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던가를 투자—수익면에서 알수 있다.

정부 지출비용의 98배 효과

또한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비 중 외원을 제외한 순수정부지출비용(89억원)과 비교하면 그 수익성은 약 98배에 이르러 정부에서 투자하는 여러가지 사업중 가족계획사업이 어떤 다른 사업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총수익 8천7백36억원을 오

직 직접비만고려하여 피임방법별 출생방지아수로 나누어 각 피임방법별 수익·비용비율을 보면 자궁내 장치가 가장 높아 약3백4배를 보이며 다음은 먹는 피임약 약1백90배, 불임수술 약1백88배 그리고 콘돔은 약1백61배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60년대(1962~69년)와 70년대(1970~1973)를 비교하여보면 60년대 수익성은 약41배인데 비해 70년대는 약 1백5배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수익율이 70년대에 크게 증대하는 것은 출생방지효과가 누적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파급효과가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 지원 사업 보다 높은 성과

이와같이 지난 12년만에 결친 정부에 의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지원 투자는 매우 유익하였으며, 다른 어떠한 정부지원사업보다 앞서는 높은 수익성을 낳고 있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1973년 현재 우리나라 가참여성중 불

과 26%만이 정부사업에 의하여 피임혜택을 받고 있고, 더우기 가참여성인구가 1973년 현재 약 4백30만명에서 1981년에는 약 6백만명으로—약40%가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정부는 어느 사업에 못지 않는 높은 투입효율성을 보여주고있는 가족계획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의 할애를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1백만원투자면 7천1백만원수익

끝으로 요약하면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1백만원의 투자는 궁극적으로 7천1백만원의 수익을 국민경제에 안겨준다는 점을 생각할때 가족계획사업의 경제수익성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글·당원 평가분석부 고갑석 부장>

지상 전사실

2% 증가면 2천년대엔 60억 돌파

1975년말에 세계인구는 40억에 달할 것이다. 현재 세계인구의 연간 증가율은 2%다. 2%의 의미는 고려대금급자에게는 보잘것없는 이자율이지만 인구증가 쪽에서는 무시무시한 숫자이다.

예를들어 1962년에 세계인구 30억이 매년 2%씩 증가하면 1백42년 후에 5백억에 달할 것이다. 5백억이란 숫자는 권위있는 지질학자가 추계한 지구의 인구최대수용능력이다.

이때는 첫째, 태양력(太陽力)과 원자력이 극도로 발달하여 에너지나 원료값은 아주 싼값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자는 바위·바다·공기에서 쉽게 얻을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간은 고기나 야채를 먹지않고 초농장이나 효모(酵母)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살아야 될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자. 인간이 사냥과 농사로 살던 시기는 기원전 6000~8000년인 구석기 시대였다. 이때 세계인구는 1천만 미만이였다. 이 인구가 5억(서기 1650년 세계인구)에 도달하는데 8000~10000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1650년 이후 3세기동안 세계인구는 30억(1962년)으로 증가

전 사이에는 차마전 이후에는 1천명당 20명꼴로, 인구증가율은 최근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되었다.

지구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인구가 30억에 도달하는데 시초에 12명이 매년 2%씩 증가하면 976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기 1950년 이후 매년 2%씩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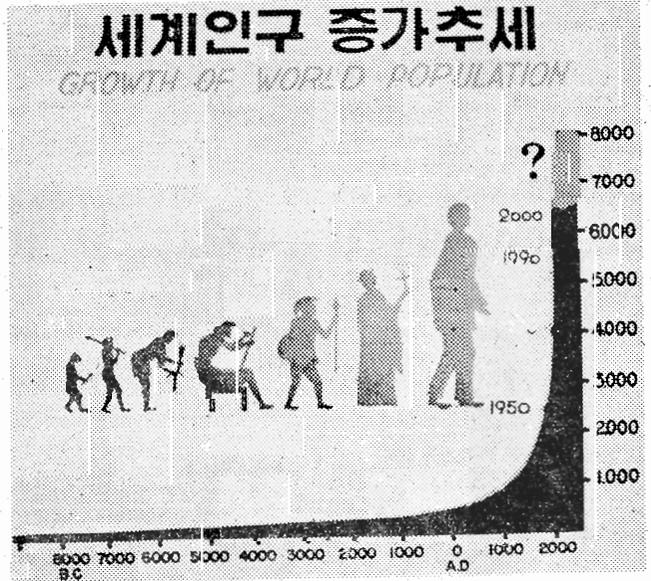
되었고 1962~75년의 13년간 다시 10억이 증가해서 1975년에 40억에 도달된 것이다.

구석기 시대의 연평균 인구증가는 인구 1천명당 0.02명이었던것이 1650년대에 1천명당 4명으로 증가 되기는 했으나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세계 양차대 1천명당 10명꼴로, 제 2

가한 세계인구는 '불기둥이 솟는 것처럼 급증하고 있다.

만일에 현 세계인구가 매년 2%씩 증가를 계속하면 서기 2000년에 60억을 돌파할 것이다. 이러한 경악할 인구증가는 사망율의 급격한 저하 때문에 생긴 현상이란것을 고려할때, 인간의 생존을 위해 출산수준을 사망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현명한 노력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글·당원 송건용 연구 2과장>



◇지구의 인구최대수용능력은 5백억이며, 1962년 세계인구 30억이 매년 2%씩 증가할 경우 1백42년만에 5백억이 될 것이라한다.

◀요 원 수 칩▶

콘돔...즐겁게 사용하는법



콘돔은 있는 모양 그대로 <그것>에 씌우는 것이 아니다. 봉지에서 꺼낼때 도르르 말려있는 콘돔의 젓꼭지같은 부분이 정액발이인데 ①입김으로 불어서 뒤집는다. ②정액발이전체에 침이나 젤리롤바를 뒤 (안알라도 그만) ③깨끗한 손으로 어느쪽으로부터든 비틀어서 ④비틀쪽을 남성성기 끝에 닿게한 다음 ⑤도르르말려있는 링같은 고무주머니를 주름치지 않게 끝까지 씌워서 떠나간다. 이때 정액발이가 젓꼭지처럼 남성성

기 끝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비틀려 있는 채 바람이 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정액발이등 콘돔에 공기를 빼는 이유는 ①사정시 남성이 더즐거울뿐만 아니라 ②공기가 있으면 찢어지기쉽고 ③여성의 자궁경부를 자극시켜 신경을 쓰이게하기 때문이다.

무관심한 남편이나 소극적인 남편에게 일시적인 호감을 사려면 부인이 직접 콘돔을 씌워주는 것이 좋다. 부부의 무드를 깨지 않으려면 콘돔을 항상 필요할때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부인은 남편에게 콘돔을 씌워준 다음 ①자기의 질분비액 정도를 판단해서 ②질분비액이 적으면 삽입시 아프거나 콘돔이 파열 되기 쉬우므로 침·젤리롤을 바르도록하고 ③분비액

이 충분할 경우 그냥 사용한다.

씌우는 시기는 남성성기가 완전히 발기한 다음 귀두부를 충분히 노출시킨후에 합이 이상적이다. 이를 무시할경우 콘돔이 귀두부에서 늘어나 찢어지기쉽거나 성감도 좋지못하다.

만약 사용후 콘돔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곧 부인이 뒷물을 한다.

사용한 콘돔은 휴지에서서서 가위로 잘라 휴지통에 버리거나 땅에 묻도록한다. 사용한 콘돔은 다시 쓸수없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라도 불어서 아이들 풍선을 만들어 주어서는 흉스럽다.

요즘 콘돔은 제작시 엄밀한 검사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이상과같은주의만 게을리 하지않으면 원치않은 임신을 하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

<편 집 실>

말레이시아

외국 가족 계획⑥

⑩가족계획에 종사하는 인원의 범위는?

NFPB(국립가족계획청)나 FPA(가족계획협회)에 종사하는 일선요원들은 간호원·조산원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받지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요원은 가족계획의 오리엔테이션교육과정을 전부 마친사람들로 RN(자격간호원)의 감독을 받게됩니다. 또한 주단위마다 의사들두어 NFPB사업을 관장합니다.

FPA는 주마다 1명의 간호지도원과 자격간호원및 조산원을 두고 있습니다. 부자격간호원및 조산원은 IEC(계몽교육및 홍보)를 관장하며 지원한 의사들은 가족계획의 진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건부에는 가장 낮은 직책이라도 자격조산원을 두고 있고, 매우 활발히 IEC에 치중하며, 어머니들과 직접 면담해서 가족계획을 실현케 하는 한편 피임약을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간호원은 이 업무를 감독·지도하며 어머니들의 불만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부기관의 병원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안내를합니다.

⑭가족계획사업추진에 있어 큰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①서말레이시아는 여러 종교가 있기때문에 그중 어떤 종교에서는 가족계획방법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②남아선호사상이 무척 강한 집입니다.

③문화적인 신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④가정 가족수가 많으면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하는 관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⑤지도층 시민들 중에는 서말레이시아가 인구과잉이 아니라고 하는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⑥서말레이시아 가족계획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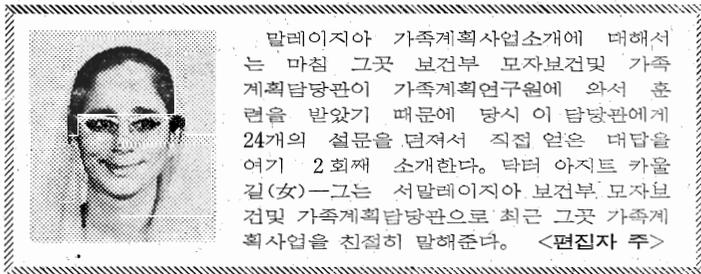
홍보계몽교육치중
모자보건사업모범국가

망은?

가족계획을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결혼연령에 들어선 젊은 남녀를 포함, 지역사회를 통한 IEC를 강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말레이시아는 무척 IEC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몽·교육및 홍보사업은 좀 어렵지만 특수문화적·종교적인 폐련도 변경시킬수 있을뿐만 아니라 장차 소가족및 가족계획실천을 가져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말레이지



말레이시아 가족계획사업소개에 대해서는 마침 그곳 보건부 모자보건및 가족계획담당관이 가족계획연구원에 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이 담당관에게 24개의 질문을 던져서 직접 얻은 대답을 여기 2회째 소개한다. 타티 아지트 카보길(女)—그는 서말레이시아 보건부 모자보건및 가족계획담당관으로 최근 그곳 가족계획사업을 친절히 말해준다. <편집자 주>

아 보건부는 아주 잘돼가는 모자보건사업에 가족계획사업을 통합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서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지금까지 패밀리사이즈(가족수)를 제한하지 않고있는 반면 스페이싱(태울조절)만을 조연하고 있습니다. 모르긴하지만 1981년도에 가서는 각어머니들이 패밀리 사이즈를 출하는데 적극 참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⑮한국 가족계획사업과 비교해보면?

우리 말레이시아는 가장 우선적으로 모자보건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까지도 이를 확장해서 도시보급과 같이 자랑할수 있을만큼 조직망이 잘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가족계획사업을 이기반(MCH)위에 통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국에와서 핀드트립(일선사업시찰) 등 가족계획사업을 시찰한 결과 인구조절및 가족계획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너무나 잘돼있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의 것과 비교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말레이시아)와는 반대로 한국은 지금 가족계획사업의 확고한 기반아래 MCH(모자보건사업)를 가족계획사업에 통합시키려고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습니다.

「아들딸 구별받고 들만방아 잘기르자」가 구호의 마지막부분 「잘기르자」자 바로 모자보건에 속하는것으로 나머지 무척 공감하고 중요한과제로 생각합니다.

⑯조기 출산율은?

1천명당 32.2%입니다.

⑰조기 사망률은?

1천명당 6.9%입니다.

⑱인구배가변수는?

현재의 추세로 2000년까지 간다면 30년이 될것입니다.

⑳유아사망률은?

1천명당 38%입니다.

㉑평균 자녀수는?

1가구당 5명씩입니다.

㉒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 20세, 여자 18세입니다.

㉓평균수명은?

57세입니다.

㉔국민소득은?

1970년도 현재로는 4백20불입니다. 그러나 계획에 의해 점점 더 소득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1980년대에는 1인당 1천불이 넘겠지요.

<글·당원국제훈련과 신뢰실 연구원>

정부의료기관 의사에게 진료의뢰

모자보건에 가족계획 포함 노력

가족수 제한보다 태울조절 권장

<수 필>

가족계획과 새마을운동

최 금 순



우리 요원들은무거운 짐을 지고있다. 특히 보건요원들은 가족계획계몽과 권장, 보건교육·예방접종·식생활개선·부엌개량등등 이외에도 여러가지할일이 많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이란 곧 <잘살기 운동>이다. 그렇다면 가족계획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우리 요원들은 무엇을해야하나? 「새마을 운동」이란 그저 지붕개량·다리놓기·농토화장·수로개선·부엌개량·변소개량·식생활개량만이아니다.

이러한 <개량·개선>운동은 단지 <환경정화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산뜻하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기분이 좋게, 마음이 밝게, 명랑하게하여 <오직 소득증대를 해보자>는 수단에 불과하다.

「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종의 <국민정신 개량 운동 (?)>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요원들의 할 일은 첫째, 겉소한 옷차림으로 질지 않은 예쁜 화장을하고 언제나 웃으며 마을을 방문해야, 한다.

둘째, 마을 현황과악을 잘하고, 가족 계획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새마을 어머니회·부녀회·가족계획어머니회를 묶어 잘 지도·이용해야한다.

셋째, 각부락의 청소년들을 도시로 못가게지도해야겠다. 그때책으로 4-H 자금등을조성, 그들에게부업을갖게유도하고, 일하는보람을느끼도록해야한다.

네째, 가정방문에 항상 부엌을자연스레 둘러보고 행주나 도마등의위생적인 사용법을 계몽하고, 가족계획 실천자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마을 문고」로 나오고 있는 독농가 성공사례집을 다 읽고나서 기회있는대로 얘기를 해주도록한다.

가족계획 요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폭넓은 계몽방법을 쓰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상담도 될수 있고 상담이되다가 보면 실적도 오르게 마련이다. 요원파 부인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요원들의 광장

맞지 않는다면 <무슨일을 얼마나 해낼수 있을까>가 의문스럽다.

우리는 덴마크의 체육지도자 부크(1890~1951)가 창안한<덴마크 체조>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 <덴마크 체조>는 스웨덴식에 독일식을 가미한 것으로 운동이 힘차고 연속적이며 율동적인 것이 특색이라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새마을 체조>는 힘찬면은 있지만 언제까지나 연속적이면서도 율동적인 면이 부족한것같다. 율동적인 체조는 형식을 벗어나는 국민운동에 있다고 본다.

덴마크는 비자적이고 강풍이많은 나라에 추위가 심해 땅은 박토였었다.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다른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서로 남북으로 대륙과 바다에 인접해있는 공통성일까? 영국의 식민지(덴마크)에 일본의 식민지(우리나라)였다는 점일까? 문화가 고도로 발달되어있는 덴마크, 그 나라 옛날 동화속에 등장하던 왕자가 이땅에 관광온다면 무어라고 말할것인가?

덴마크는 오늘날 세계제1의 농업국이다. 이나라를 잘보고 가족계획사업을 국민운동으로 생각하며일하자!

<전남 광양군 봉강면 사무소>

젊은 여인들에게 바라며

박 영 순



직원회의 석상에서 면장님의 말씀을 뜻깊게 되새겼다. 나는 과연 지난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으며, 75년인 올해는 또 무슨 일을 어떻게성공시키려 하고 있는가?

가족계획요원인 나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

과연 내가 내고장에서 필요로하는 존재인가? 이 물음은 <꼭 아들을 낳아야만 했던가? 아들을 낳아야만 시집살이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대치한다.

<아들을 낳으라!>고 소리치는 부모님들—아들을 낳으려고 애태우는 며느리들—이 가운데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케치플레이즈! 이속에서 헤매는 나....

그저 낳아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저 인구증가율을 저하시키기만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식이야 어찌되든 자신만 잘 살면 되

는 것인가? 반대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 자식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고 하자.

나중에는 자식들로부터 구박을 받다못해 끝내는 지팡이에 인생을 의지하며 거리를 방황한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다가 <문전걸식>을 더 겹쳐서 이나마도 지쳐버린 육신이라고 단정해 보자.

부모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면

<요원의 시>

말없는 갈잎 하나 데리고

김 용 설

미운 빛살 한가닥 물결에 밀려오는 듯

웬지 그 물살 한가닥 못건디는 듯

물살나 머리핀 안개로 날아버릴 때

아, 이 황홀한 아침 환상!

네 보드라운 흰 손수건으로 이 보라빛 가슴을 훑어도 좋으련?

먼지 쌓인 붉은 <하이네시집>을 꺼내

빛났은 꽃잎 꽃아논은 책갈피 펼칠 때

하야니 목말라 시든 이 잔웃음은

찾아 올 수 없는 나의 사랑의 밑물!

아, 잠시잠시 애타는 그리움 이 보라빛 가슴을 훑쳐가주렴?

맑은 창밖에는 어둠이 흐르고 흐르는 어둠의 허연 울음소리

가만가만 가슴속을 부대껴오는 이 서러운 한밤의 빛물시음!

하얀하얀 눈이라도 내리려는지 이가슴 왜 이리 훑날리울까?

아, 어리석고 안타까운 나날을 이 안개 고인 허공간에서 젖은 흙웃 하나 걸친나뭇가지야

목마른 내 갈증을 노래해주렴!

네 목청 환히 쌓여내리는 달밤으로

나 말없는 갈잎 하나 데리고 돌아가려니....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사무소>

지도층의 인구및 가족계획계몽 강화

요원 자신의 노력도 뒤따라야

가족계획요원이 보건소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있는 각종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많이 동원되고있다. 보건요원이 해야할 여름철방역업무를 비롯하여 요원들에게는 생소한 세검정수·퇴비중산·호적업무 등 잡다한 일을 도와주어야할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지역주민 스스로의 사업이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지금 한창 새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전례없이 강력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같은 시기에 우리 가족계획요원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한 역군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면 이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비록 나이 어린 여자들이지만 향토애에 불타는 정열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면 이는 농어촌과 도시 영세지역 어느 일꾼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 아는바와같이 가족계획사업은 훌륭한 새마을사업의 하나로 주민의소득증대사업과 직결되고 있음은 물론 모자보건을 필두로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사업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주민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을 수있는 사업이 될때 이 사업이야말로 지역사회 어느 사업과도 떼어 놓을수없는 지역주민스스로의 사업이 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은 얼핏 느껴지기를 「보건소를 중심으로한 요원주주의 사업이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한다.

말하자면 지역사회 주민들은 가족계획사업이 그들을위한 사업이 아니고 가족계획요원이 하는 사업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것이다. 많은 지역사회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만은 이런 모순속에서 진행될수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가령 지방개발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등은 지역주민의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에 처음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밀고나갈 경우 결과적으로 이해되고 또 성공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 가족계획사업은 주민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서 자신의 의견만이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상 있을수있는 선의의 무리나 강제도 용

납되지 않는다.

자신이 선택하지않으면 불가능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인구폭발을 막기위해 의무교육해택·주택정책·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출산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있지만, 이는 모두 간접적 방법으로 지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피임대상자 자신이 피임을 선택해주지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지니고 있다.

이러서 10년전이나 현재나 가족계획요원의 가정방문은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사업이야말로 지역사회 주민의 진정한 호응을 받는 사업으로 토착화(土着化)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문제는 가족계획사업이 중요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이며 가족계획요원은 훌륭한 새마을 역군이라는 것을 지역

나로서 새마을사업내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지방의 새마을 사업주도자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요원들을 새마을 사업에 많이 동원하면서 가족계획사업에는 총력을 기울여 주지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모를지기 소득증대와 지역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다고 정책적으로는 인정하면서 일선 집행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정책 입안자 인식 새롭게 해야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앙에서는 지난74년의 「세계인구해해」를 맞아 인구폭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법·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여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있다.

또한지방유지들을 위해 전국 군내 부과장·새마을과장·부녀아동과장·복지부녀계장에 대한 인구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필했으며 전국 면장·부면장에 대한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수원 새마을연수원에서 가족계획교육시간을 두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가족계획요원의 주위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인사는 모두 훈련내지 계몽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가족계획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녀단체지도자이며서는 특별세미나가진행되고 있다. 훈련목표는 중앙이나 지방의 모든지도자에게 인구및 가족계획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두고 있으므로 계속진행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이들 주위지도자의 충분한 이해도 문제지만 우리 요원 자신도 좀더 노력하자는 것이다. 물론임시직은 봉급등 작업환경이 나쁜 목표량제도와 가입여성의 폭중등 임하기 힘들게된 요원이 우리요원들로부터어금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들고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는 일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람되게 참고 일해간다면 우리주위지도자들의 생각이 달라지리라 믿어진다. 요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군내인 요원에게 자전거를 사주어 기동력난을 해소시켜준 군수들도 있으며 목표량 달성을위해 보건소내 전 보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보건소장도있다. 이와같이 가족계획사업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요원이 지방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일꾼이 될때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은 성공하리라 믿는다.

<글·당원 훈련과 김몽술 과장>



◇가족계획사업은 국가주요시책의 하나로 새마을 사업에 포함 돼 있으나 총력을 기울여 주지않는 이유는?

사회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는가에 있다고 본다. 지방유지들이 가족계획사업을 훌륭한 지역복지사업으로 이해하고 우리요원이 필요한 지역일꾼이라고 인식한다면 「싫으면 그만둬라!」는 대접을 받을리가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가지 측면에서생각하고 싶다.

하나는 이연순 요원이 지적한것처럼 지역사회유지들에게 가족계획을 이해하게끔 인식시키는 방법이고, 또한나는 우리요원 자신도 지방유지들이 훌륭한 일꾼이라고 인정하게끔 노력하자는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주요시책의 하

매스미디어에 의한 계몽요령은?

라디오·TV·신문·잡지·영화·인쇄물등 매스 미디어의 이용은 가족계획의 계몽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얼른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매스컴의 활동은 우리들 가족계획요원의 임무와는 별판계가 없으며, 다만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국민에게 소개된 것으로서,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매스컴이 가족계획의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자연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이것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가족계획참여도를 높여주는 우리 임무를 수행하는데 밀접한 판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①매스컴은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넣어줄수 있다.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가족계획이 왜 우리 생활에 필요하며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를 일반에게 잘 보급시킬수 있다. 심지어는 임신의 기전과 피임의 방법에 대하여 매스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할수 있고, 또 그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이고, 따라서 자기에 게 알맞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줄수 있다. 헛된 풍문을 퇴치하는데 매스컴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피임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수 있나를 널리 주지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②매스컴은 국민들에게 가족계획을 받아들이게하는 강한 동기를 마련해 준다.

매스 미디어를 잘 이용하면 국민들이 소자녀의 잇점, 적당한 태움의 필요성 등 가족전원의 건강이나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절약등 가정경제의 향상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도록해서 가족계획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경제의 발전, 자원의 절약, 환경의 보호등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쉽게 강조할수 있으며 노후의 보장도 복지국가건설에서 그 해결책을 얻을수 있다는것을, 또한 강조할수 있다.

③매스컴은 국민들에게 가족계획 실천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킬수 있다.

가족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매스컴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견해를 국민들에게 피력할수 있어 어떠한 의문점이 사회에 파급되어 있을 때 그 근원을 설명하여 국민의 납득을 얻을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가족계획을 인정하고 가족계획단체를 후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실천도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할수 있다.



◇많은 자료를 매스컴에서 얻도록 노력하자.

④매스컴은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합당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얼마나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나를 매스컴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얻고 가족계획 실천의 합당성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 또한 외국의 경향은 어떠하며, 선진사회와 후진사회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계몽함으로써 가족계획이 비단 국내적인 문제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는데서 일반의 지지를 더욱 얻게된다.

⑥매스컴은 가족계획이 새로운 생활관념이며 생활양식이라는 것을 국민 각자에게 주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가족계획의 채택여부는 근본적으로 각 가정에 있으며 따라서 이 실천을 통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그 시기는 결혼과 함께 시작되며 그결심은 결혼전에 이미 확립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어 매스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⑦요원이 매스컴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상 매스컴의 장점을 살펴볼 때 우리 요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우선 필요한 것은 매스컴에서 얻은 자료를 자세히 기록하거나 보관해 두어 가정방문이나 집단 지도에서 널리 이것을 이용하고, 특히 이때 많이 질문을 당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 많은 자료를 매스컴에서 얻을수 있도록 노력한다.

물론 자기 자신이 관여할수 있는 매스 미디어의 활용, 예컨대 영화의 상영, 인쇄물의 배포, 강연회의 개최 등은 주민에게 알맞는 방법과 표현으로 이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글·당원 김용완 부원장>

<발언대>

「피임약 무료분을！」

소화제·감기약 등도 필요

이영숙
우리요원들에게는 「먹는피임약」 무료분이 필요하다. 시골에서는 공짜라면 가족계획을 할 사람이 있어도, 돈이 든다면 외면하는 예가 많다.



이럴때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요원이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루우프로 바꾸면 되지않나?」는

반문도 나올수가 있지만 오지나 벽지에서는 한한 루우포시설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는 피임약」의 무료분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 아스피린이나 소화제같은 약을 보급해주었으면한다. 아스피린은 루우포나 기타 방법에 부작용을 일으킨 경증환자에게 우선 안성맞춤이다. 구급약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가족계획에 대한 대화의 통로가 빨리 열린다.

피임약 무료분과 구급약을 오지나 벽지·도시지방의 요원은 가물에 비기다라듯 기다리고 있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 사무소>

전국 가족계획 평가 세미나

가족계획연구원, 7·8 양일간

가족계획연구원은 1975년도 전국 가족계획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7·8 양일간 가족계획연구원 강당 및 회의실 등에서 전국의 가족계획관계 전문가 2백여명(외부인사 1백여명)이 모여 개최한 이 평가세미나는 보사부가 주관하고 대한가족계획협회가 후원했다.

7일 오전 9시반 홍중판가족계획 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막을 올린 이 세미나는 이종진가협 이사장의 축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계속됐는데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백여명이 참석한 평가세미나.

- 7일 ①75년도사업방향(좌장·홍승길 이은영 유영진 김명희 최익한) ②보사부(김영희) ③가족계획연구원(김용완) ④대한가족계획협회(이주현) ⑤주제발표(좌장·김용완) ⑥정부가족계획사업평가(고갑석) ⑦특수사업확대방안(김학기) ⑧홍보사업의 문제점(김재희) ⑨요원의 활용방안(김봉술) ⑩분과토의 ⑪제1분과(정부사업)위원회(의장·고갑석) ⑫제2분과(특수사업)위원회(의장·김영희) ⑬제3분과(홍보사업)위원회(의장·이주현) ⑭제4분과(요원의 활용방안)위원회(의장·이문기) ⑮리셉션(3층식당)
- 8일 ①시도사업 평가보고(좌장·김영희) ②특강(좌장·김정태) ③안구교육의 방향(신규법) ④계몽교육사업전략(정경균) ⑤분과토의결과 보고(강당) ⑥폐회식

<이상 106명, 등록순>

어머니회 자체 개선을 희망

요원이 적극 참여 바람...59%

최근 가족계획 어머니회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족계획연구원 이영희 실습장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머니회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찬성이 97·8%로 이중 요원의 적극참여희망이 59%, 지역사회단체의 협조희망이 28%, 자체모임에 있어 목적의식이 부여되어야한다는가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이강사가 대한가족계획협회 주관으로 전국 2만 5천여개 리동어머니회의 자원지도자 훈련대를 통해 전국 각지역에서 모인 1개반 50여명에 대한 앙케이트조사로 밝혀졌다.

이강사가 밝혀낸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회 자원지도자의 평균년령은 36·8세로 과거보다 젊어졌고, 현존 자녀수는 3·2명, 가족계획 실천율은 72%이다. 교육정도는 국졸이 34%, 중졸이 26%, 고졸이 36%였고, 현존남아수는 1·6명이다.

가족계획 실천자중 루우프 사용자는 28·2%, 먹는 피

임약과 콘돔은 각각 15·5%, 정관은 12·8%, 난관절차는 0·3%, 기타는 18%였다.

소속부락의 평균 가구수는 77, 어머니회개회는 연평균 9회, 평균회원은 21명, 평균 77가구중 3분의1이 못되는 가구가 어머니회에 등록하고있다.

어머니회는 주로 겨울(74%) 봄(12%)에 열리며 여름(농번기)에는 거의 회의가 열리지 않고있다. 또한「가정의 빛」은 회원의 약 반수가 이상이 정기적으로 잘 배부를 받고 있고, 규칙구독률은 57·5%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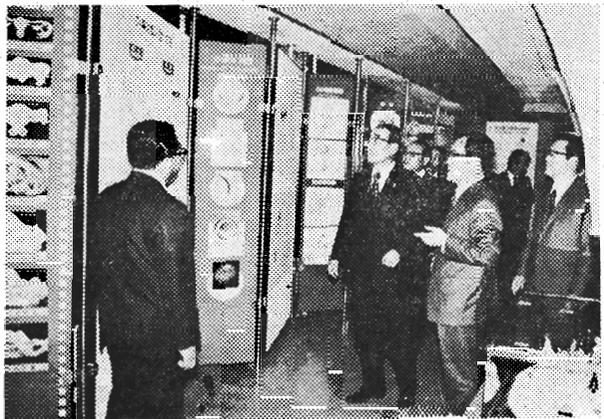
「세계적 시범 사업 약속」

고장관, 가족계획연구원 초도순시

지난 6일 고재필보사부장관에서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는 가족계획연구원을 초도순시하고 나서 훈시를 통해「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누가 더 잘살수있는가 하는것이 중앙에서는 최고의 시철을 갖는 가족계획연구원 이라는데 만족스럽다」고 치하했다.

이날 오후 1시반부터 홍중판원장등 가족계획연구원 전

부러 1시간이상 훈시를통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가족계획연구원을 순시하고 「동양제일」이라고 치하했다.

직원은 고장관및 장관일행을 해 가족계획사업과 3반공의식 맞은 다음 가족계획사업현황을 고취시킨 고장관은 훈시에 대한 브리핑과 연구원현황을 끝낸다음 강당로비에서연회를 소개, 이를 청취한 고장관은 연구원 각 부실과를 구원 전직원과 함께 간단한 「호떡파티」를 즐겼다. 고장관이 방문하면서 상세한 업무를 직접 파악했다. 각 부실과를 순시한 고장관은 오후 3시반경 연구원강당을 밝은 얼굴로 떠났다.